



“잡지마” 15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반둥의 시 잘락 하루팻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 조별리그 E조 1차전 한국과 바레인의 경기. 나상호가 드리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무패행진 광주FC 승점 3점 사냥

19일 오후 7시 서울이랜드와 홈맞대결

8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는 광주FC가 서울이랜드를 안방으로 불러들인다. 광주는 19일 오후 7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KEB하나은행 K리그2 2018 24라운드 서울이랜드와 홈경기를 갖는다.

광주는 아산과의 23라운드에서 1-1로 무승부를 거두며 후반기 8경기 연속 무패(3승5무)를 질주했다.

하지만 이제 필요한 것은 승리다. 플레이오프 마지막 4위 광주는 승점 33점(8승9무6패)으로 3위 부산(승점 37점)과 승점차를 좁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위 성남FC(승점 43점)와의 격차도 줄여야 하고 승점 30점으로 바짝 뒤를 쫓고 있는 5위 부천, 6위 수원FC의 추격도 뿌리쳐야 하기에 승점 3점은 절대 필요조건이다.

나상호의 공백을 안고 있는 광주는 수장인 박진섭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이랜드전을 치러야 한다. 박 감독은 지난 아산전에서 퇴장당해 2경기 출전 금지다.

위기를 맞은 만큼 광주의 조직력이 얼마나 탄탄한지 선수들이 직접 그려

드에서 증명해야 한다.

다행인 점은 여름이적시장에서 수혈한 브라질 공격수 펠리페가 지난 13일 첫 선발 출전에서 K리그 데뷔골을 기록하는 등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고, 두아르테 역시 후반 교체 투입되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측면 공격수 김정환과 정영종의 활약도 두드러진다. 빠른 발을 통한 역습과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에 능한 둘은 상대 골문을 정조준하고 있다.

광주는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1승 1무를 거두며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2경기 동안 3득점 무실점으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서울 이랜드는 최근 2연패에 무득점 7실점으로 수비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또한, 대전 시티즌과 주중경기를 치르고, 광주 원정을 치러야 한다. 뻣뻣한 일정과 체력 저하는 광주 입장에서 호재다.

그러나 서울 이랜드는 2연패 직전 2연승을 거뒀고, 언제든 반전할 저력을 지니고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최진화 기자

###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에 벤투 내정

유로2012 포르투갈 4강 지휘...아시아 축구도 경험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 새 사령탑으로 파울루 벤투 전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49)이 내정됐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6일 “김판곤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장이 새 감독을 발표할 예정인데, 벤투 감독이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판곤 선임위원장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2층에서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벤투 선임 감독 내정자는 다음달 7일 코스타리카, 11일 칠레와의 평가전부터 대표팀을 지휘할 예정이다. 당장 오는 27일 발표 예정인 9월 A매치 소집명단 발표 때도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벤투 감독 내정자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4년 계약이 유력하다.

연봉에도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윌리 슈틸리케 전 감독의 연봉(15억원)을 상회하는 역대 외국인 감독 최고 대우

인 것으로 알려졌다.

벤투 감독은 선수 시절 지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포르투갈 국가대표로 A매치 35

경기에 출전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한국과 조별리그 3차전 맞대결에도 출전해 박지성에 결승골을 내주며 0-1 패배하는 걸 직접 경험했다.

그는 은퇴 후 2004년 스포르팅 리스본 유소년팀 감독을 맡는 것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이듬해 스포르팅 사령탑에 올라 2009년까지 지휘하며 컵대회와 FA컵 우승 등을 이끌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하며 2012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12) 때는 포르투갈을 4강에 올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선수들 메달 사냥 나선다



남자축구 나상호·이승모 1차전 활약 오늘 2차전 백수연 평영 100m 배드민턴 안세영 단체전 시작 인천AG 동메달리스트 우수 서희주 ‘금메달’ 도전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18일 개회식을 갖는 가운데 조별리그 등 종목별 경기 일정이 본격 시작됐다.

1,044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자카르타에서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고, 광주·전남 선수들도 본격적인 메달 사냥에 나선다.

광주는 임원 2명과 선수 29명, 전남은 임원 6명과 선수 38명이 이번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참가한다.

15일 첫 경기를 가진 남자축구는 바레인을 상대로 6-0 대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고 이제 조기 16강 진출 확정에 나선다.

바레인전에서는 광주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김학범호에 승선한 광주

소속이거나 출신 선수는 3명이다. 이중 광주FC 나상호와 이승모가 선발출전해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황의조(감바 오사카)와 투톱 스트라이커로 나선 나상호는 1골1도움을 기록하며 K리그2 득점1위의 저력을 뽐냈다.

장운호와 함께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출전한 이승모도 후반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고 불 배급은 물론 수비에 동참하며 역할을 다했다.

한국은 황의조가 전반에 3골로 헤트트릭을 작성하고 김진야(인천)와 나상호가 득점에 가담하며 전반에만 5골을 넣었고, 후반에 투입된 황희찬이 경기 막판 프리킥으로 마무리 골을 넣으면서 6-0 대승을 완성했다.

2차전 상대는 키르기스스탄을 3-1로 물리친 말레이시아로 17일 밤 9시 경기가 열린다. 말레이시아전에서 승리하면 2승으로 사실상 16강 진출권을 확보한다. 3패를 기록하는 팀이 나오면 나머지 3개 팀이 2승 1패가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지만 한국은 1차전에서 무실점에 6골을 터트린 덕분에 골득실에서 크게 앞서 조별리그 통과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김학범 감독이 선수들의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로테이션을 시킬 것이라고 밝혀 말레이시아전에서 나상호와 이승모가 휴식을 취할 공산이 크다. 대신, 1차전에서 뛰지 않았던 금고호 출신 김정민(리페링)이 중앙 미드필더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회식 이튿날인 19일부터는 수영과 배드민턴, 소프트볼, 펜싱, 카바디, 조정, 세팍타크로, 사격, 태권도, 테니스, 레슬링, 무술에서 열전이 펼쳐진다.

수영에서 첫 메달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광주 선수인 백수연(광주 시체육회)도 첫 경기에 나선다.

백수연은 19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100m 평영 예선에 출전한다. 결선은 밤 9시5분부터 시작된다.

광주체고 안세영도 첫 시합에 나선다. 19일 오후 4시 배드민턴 여자 단체전이다.

이날 낮 12시 홍콩과 열리는 소프트볼에도 광주시체육회 소속인 정혜인과 원혜송이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이보나(광주사격연맹)도 사격 1일차 경기를 시작하며 서희주(순천우수협회)도 오후 2시 무술 우수 검술결선에 출전한다. 인천 대회 동메달로 한국 여자 최초의 우수 메달을 획득한 서희주는 자카르타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최진화 기자

## 45억 아시안축제 내일 막 오른다

45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 2018 자카르타·팔렘방 하계 아시안게임이 18일 막을 올린다.

18회째를 맞는 이번 아시안게임은 18일 밤 9시(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겔라라 봉 카르노(GBK) 주 경기장에서 16일간 열전의 시작을 알린다.

이번 대회 모토는 ‘아시아의 에너지’(Energy of Asia)다. 인도네시아는 개회식에서 ‘인도네시아의 힘’을 펼쳐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공식 홈페이지는 “개회식은 ‘인도네시

인도네시아 자연 형상화한 무대... 남북 동시 입장 팔렘방에서도 개막 행사... 한국 가수 팀·세븐 출연

아가 국제대회를 개최할 만큼 거대한 나라”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네시아는 1962년에도 자카르타에서 제4회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적이 있다.

당시 17개국 약 1,500명 규모였던 대회는 56년 후 45개국 1만1,300명 규모로 확대됐다.

길이 120m, 너비 30m, 높이 30m의 대형 무대가 선수단과 관중을 맞이한다.

인도네시아 예술가들이 제작한 이 무대는 산이 봉긋 솟아 있는 형태로, 인도네시아만의 아름답고 독특한 식물과 꽃으로 꾸며진다.

안근, 라이사 등 인도네시아 유명 가수들과 4,000명의 댄서들이 공연

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자카르타와 함께 남부 수마트라 섬의 중심도시 팔렘방에서도 경기가 열린다.

‘수마트라 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은 팔렘방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한국인 가수 팀(황동민)과 세븐(최동욱)이 등장한다고 전했다.

한국과 북한 선수단의 동시 입장도 개회식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남북은 여자농구, 조정, 카누 용선 등 3개 종목에서 단일팀도 꾸려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목포시청 대통령기하키 우승

3승1무 17득점 기록

목포시청이 올시즌 첫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다.

목포시청은 지난 14일 충북 제천 청풍명월하키장에서 끝난 제32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여자 일반부 풀리그에서 3승1무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목포시청은 이번 대회에서 대구과학대를 3-0으로 이긴 뒤 한국체대와는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북하키협회를 9-4로, 제주국체대를 3-0으로 격파하는 등 종합전적 3승1무·17득점

으로 한국체대(3승1무·14득점)를 득

점차로 제치고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목포시청은 올시즌 3회 3위(춘계·종별·협회장기대회), 2위 1회(한국대학실업연맹회장배)보다 한단계 높은 첫 우승과 함께, 지난 대회 3위 아쉬움도 털어냈다.

이번 우승은 국가대표 주전 3인방인 조운경·조은지·이유림의 아시안게임 출전으로 인한 공백을 딛고 차지한 우승으로 오는 10월 전국체전에서의 입상 및 다득점이 기대된다.

목포시청 최경서(29·DF)는 최우수 선수상을, 김현지(25·골·MF)는 득점상을, 백경태 코치(44)는 지도자상을 받았다. /최진화 기자



목포시청이 지난 14일 충북 제천 청풍명월하키장에서 끝난 제32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여자 일반부 풀리그에서 3승1무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